

▶ 법회 및 기도 안내 ◀

- 일요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00 - 12:30
- 어린이 법회: 일요일 오전 11시
- 청년(선우회) 법회: 일요일 오후 14시
- 어린이 한글학교: 토요일 오전 9시 30분

▶ 공지사항 ◀

- 동지기도안내
12월 14일 - 12월 21일
- 불교강좌 안내
-12월 11일 - 3월 5일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12강의)
-12월 12일 - 3월 6일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12강의)

▶ 기도 동참 (12월7일 - 12월13일) ◀

- 법등: 김택영 김대유 김미경 김대성 이호석(영가)
홍인한 홍슬기 홍슬옹 정유진(법연행) 홍찬표
GeanJooAn 송수진 홍정숙 이재광
- 백일기도: 조인영 홍주연 함영조 이호석 정영교 윤여원
최성만 박병란 조창연 법연행 신동준 김기현 황선희
이충일 최성만(영가) 이영희
- 인등 만등: 김신아 김희상 김카일 JT Fisher Addie
Fisher 윤수일 윤수진 윤수민 엘리사 로버트 마이크
시드니 SanHwaBenard 이현준 이현수 이현정
- 기도: 홍인한(신증, 동지) 진각행(사경)
- 보시: 보승향-법연행(불기)
- 대중공양: 홍법화심 이현심화(과일공양)이영현(떡공양)
꽃공양(불국화, 이미나) 나요미 고순동 법연행
- 불교강좌:정법심 정영교 법연행 현심화 정대환 이대지성

- 회주: 현성스님
- 주지: 성향스님

일요법회

불기 2558(2014)년
12월 14일 제19호



부처님 말씀

악행을 한 사람은 그 갚음을 받나니

자신이 악행을 하지 않으면

악은 스스로 정화된다.

깨끗하고 더러움은

오직 자신으로부터 비롯되나니

비록 처음에는 악한 짓을 했지만

점점 선행으로 과거의 악행을 극복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마치 달이 구름을 헤치고 나오듯

이 세상을 비춘다.

-법구경-

9. 취(取)

영어: attachment, 산스크리트어: upādāna, 팔리어: upādāna, 『잡아함경』 제12권 298경, 법설의설경(法說義說經)에 따르면, 취(取)는 욕취(欲取) · 견취(見取) · 계취(戒取) · 아취(我取)의 4취(四取)를 말한다.

취(取)의 한자어 문자 그대로의 뜻은 가짐 또는 취함인데, 모니어 모니어윌리엄스(Monier Monier-Williams)의 《산스크리트어-영어 사전》에 따르면 산스크리트어 원어 우파다나(upādāna)의 일반적인 의미는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취하는 행위(the act of taking for one's self),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전용(轉用: 쓸 곳에 쓰지 않고 다른 곳으로 돌려서 씀)하는 행위(appropriating to one's self), 받아들임(accepting), 허용함(allowing), 취함(taking), 획득함(acquiring) 등이 있고, 불교 용어로서는 ‘갈애 즉 탐욕이 원인이 되어 존재를 짊들잡는 것 또는 집착하는 것으로 유 즉 새로운 태어남의 원인이 되는 것(grasping at or clinging to existence caused by trṣṇā, desire, and causing bhava, new births)’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 후자의 불교 용어로서의 정의는 애연취(愛緣取)와 취연유(取緣有)의 의미를 합쳐서 취(取, upādāna)를 정의한 것이다.

현대의 불교 사전들에 따르면, 취(取)라는 낱말의 일반적인 의미는 집지(執持: 잡아서 가짐, 잡아서 지님, 잡은 후 버팀, 잡은 후 유지함)·집취(執取: 잡아서 가짐, 잡아서 취함, 잡은 후 받아들임, 잡은 후 의지함인데, 좁은 뜻으로는 로는 집착(執著: 짊들잡은 후 들러붙음, 들러붙어서 떠나지 못함)이라는 번뇌를 뜻하고, 넓은 뜻으로는 모든 번뇌(煩惱)를 뜻한다.

즉, 후자의 넓은 뜻으로는 취(取)는 번뇌의 다른 말인데, 4취(四取)라고 할 때의 취(取)는 이 후자의 뜻이다. 그리고 어떤 번뇌를 취(取)라고 할 때는 마음이 해당 번뇌의 대상을 그릇되어 좋아하여[惡欲] 취한 후 그것에 들러붙어서 떠나지 못한다는 의미를 부각시키는 표현이다.

4취(四取)는 모든 번뇌를 취(取)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 4그룹으로 분류한 것이다. 즉 대상을 그릇되어 좋아하여[惡欲] 취한 후 그것에 들러붙어서 떠나지 못한다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모든 번뇌를 4그룹으로 분류한 것이다.

견취(見取)는 그릇된 견해에 들러붙어 떠나지 못하는 성격의 번뇌들이고, 계취(戒取) 또는 계금취(戒禁取)는 그릇된 계율과 그릇된 금지조항에 들러붙어 떠나지 못하는 성격의 번뇌들이고, 욕취(欲取)는 욕계의 사물에 들러붙어 떠나지 못하는 성격의 번뇌들이고, 아취(我取) 또는 아어취(我語取)는 색계 · 무색계의 사물에 들러붙어 떠나지 못하는 성격의 번뇌들이다. 구체적으로는 4취는 다음과 같다.

① 욕취(欲取)는 욕계의 5욕(五欲)의 대상을 그릇되어 좋아하여[惡欲] 취한 후 그것에 들러붙어서 떠나지 못하는 성격의 번뇌들로, 달리 말하면, 욕계의 색 · 성 · 향 · 미 · 촉의 5경에 들러붙어 떠나지 못하는 성격의 번뇌들이다.

② 견취(見取)는 3계의 그릇된 견해를 그릇되어 좋아하여[惡欲] 취한 후 그것에 들러붙어서 떠나지 못하는 성격의 번뇌들을 말한다.

③ 계취·계금취(戒取, 戒禁取)는 3계의 그릇된 계율이나 그릇된 금지조항을 그릇되어 좋아하여[惡欲] 취한 후 그것에 들러붙어서 떠나지 못하는 성격의 번뇌들을 말한다.

④ 아취·아어취(我取, 我語取)에서 아취의 문자 그대로의 뜻은 '나를 취하는 것'으로 '나에 대한 집착'을 뜻한다.

